

제1795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1월 5일

(음력 11월 27일) 토요일

The Kwangju Ilbo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5(土)  
구름 조금  
-1/9°C

6(日)  
구름 조금  
0/10°C

News

- 광주·전남 폭설 피해 37억 ②
- 제설 작업 소흘 11명 사상 ③
- 박지성 내일 복귀골 쏜다 ⑯

Jeollado

- 전원생활·화순 김용재씨 ⑩



Entertainment

- 새해 안방극장 풍성 ⑧
- 올해 한국영화 기대작 ⑨

Wellbeing

- 식품 탐구·대합 ⑯



## 자원봉사 밀물...‘타르 재앙’ 이긴다

4일 4,500여명 전남 해안 달려와

이주여성 가족도 동참 제거 작업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로 인한 타르 덩어리가 전남 서해안으로 밀려들자 방제작업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밭길이 밀물처럼 이어지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하루 무안과 신안·영광·진도 등의 해변에서 타르 덩어리 제거 작업을 벌인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4천51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영광이 2천299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안 1천240명 ▲신안 800명 ▲진도 244명 등이었다. 이들은 해안 구석구석에서 타르를 비닐 봉지에 수거하거나 바위에 붙은 기름 치꺼기를 닦아내며 차기운 바닷바람과 싸웠다.

전남도가 자원봉사 접수창구를 개설한 지 이를째인 이날 오후까지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타르 제거

작업에 동참하겠다고 신청을 해왔다. 단체별로는 광주은행·광양제철·광주서부경찰서·해수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광주방기상청·환경나비산악회·광주 빛고을교회 등이다. 무안·영광·신안군 방제종합상황실에는 이날 자원봉사를 문의하는 수백 통의 전화도 쏟아졌다. 이주 여성들과 가족 단위의 봉사자들도 눈에 띄었다.

무안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소속 이주여성과 자녀 30여명은 이날 무안군 해제면 대사리 백학마을 해변에서 기름 묻은 바위를 닦느라 여념이 없었다.

15년 전 한국으로 시집 온 하라다

마리코(46·무안군 운남면)씨는 “이를 전부터 방제작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날씨가 풀리면서 녹아내리는 타르를 제거하기가 힘들다”면서 “하루하루 자원봉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아들과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한 박수만(47)씨는 “막상 와서 보니 피해가 월씬 심각해 놀랐다”면서 “자원봉사자 대부분이 태안으로 몰리고 있는데 피해지역이 서해지역으로 확산된 만큼 자원봉사자를 효과적으로 분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안=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영광·무안·신안·진도 등 전남 서해 연안에 유입된 타르 덩어리 제거 작업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밭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일 무안군 해제면 대사리 도리포 해안에서 자원봉사자 700여명이 타르 제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무안=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역사마을·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 등 59건

## 문화수도, 내년 총 2,965억 투입

조성사업 세부 계획안 마련

광주시의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세부 추진 계획안이 마련됐다. 광주시는 4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세부 추진 계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5일부터 11일까지 시민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세부 계획안은 연차별 실시계획을 마련토록 돼 있는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에 따른 것이며 정관 계와 학계, 예술계 등으로 구성될 실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이 계획안은 오는 2023년까지 총 5조 3천억원이 투입되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하는 연차별 계획 가운데 첫해(2009년) 사업이다.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59건에 모두 2천96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 종교문화예술밸트 조성 등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1천109억원이 투입되며 아시아 전통문화공간과 폐선부지 녹지공간 조성 등 문화도시 기반사업에 590억원이 배정됐다.

광주시는 오는 3월까지 이 계획안을 최종 확정, 내년 사업으로 정식 추진할 방침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주택 거래세 절반 인하

식품업무 농림부로 일원화…해수부 등 통폐합

행자부 등 인수위 보고

또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업무 역시 농림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여 나머지 물류·항만 기능이 건설교통부와 통합될 공산이 커 해양수산부의 통폐합 가능성이 커졌다.

이밖에 인수위는 정부 부처의 대외 정책·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통일부 등 유관부처의 기능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참여정부 5년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위원회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갯속이던 정부 조직개편안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또 취득·등록세 등 주택 거래세를 현행 2%에서 1%로 절반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보고에서 주택거래세를 1%포인트 추가 인하할 경우 1조2천5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만큼 세수감소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득세 도입, 지방 교부세율 인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주택거래가 활발해집을 감안할 때 세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세수감소 보전대책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여수 시민 “해수부 존치를”

인수위 해체설에 엑스포 준비 차질 우려

2012 세계박람회 여수준비위원회

에 소속된 여수 시민들은 4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해양수산부를 협행 체제로 존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새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해체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EXPO를 앞두고 주관 부처가 없어지거나 변경된다면 준비에 차질을 끊을 우려가 있다. EXPO 유치에서 준비까

지 주관하는 해양수산부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상경한 여수 시민과 어민들은 모두 40여명이지만 인수위 사무실에는 여수준비위 이상을 집행위원장과 여수 수협장 최영환씨 등 5명만 대표로 방문했다. 이들은 다른 지역 시민단체들과 협의해 해양수산부 해체를 반대하는 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접수중!

▶http://marathon.kwangju.co.kr ▶문.전 062-220-0581

Stay Crushed

LANEIGE